김생기 시장

"민선 5기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희망찬 시간이었고, 특히 전북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졌으며 미래 100년 정읍의 먹거리를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생기 시장의 소회다.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중앙부처 40개, 전라북도 42개 모두 82개 부문별 평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 잘하고, 시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대왕의 '백성과 더불어 하면 할 수 있다(如其可疑 則與民同)'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면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하고,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김 시장으로부터 지난 성과와 계획을 들어봤다.

전북 서남권 중심도시 기반 다졌다

◇삶의 질을 높이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749억원이던 지방채를 꾸준하게 44억원씩 상환, 지난해 말 기준 438억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지방채 제로시대'를 열었다. 당초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10년 조기상환함에 따라 4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4월 개통한 KTX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11월 개원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장사문화 개선은 물론 정읍, 고창, 부안, 김제 4시·군민들에게 장사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정읍장학숙이 개관해 인재 양성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내 시 단위 최초 공립미술관인 시립미술관이 2015년 개관했고, 브랜드 콜택시 출범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복지택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환경도 구축했다.

정읍 공두리 스포츠센터 개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보훈회관 개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여성용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총력을 쏟았다.

◇미래형 첨단과학산업 선도도시로 우뚝서다

2015년 7월 신정동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가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국내 유일 농·생명 융복합 거점지구로 지정받은 이곳은 농업 관련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친환차·의료전문기업인 ㈜다원시스를 유치해 하반기 공장 착공 예정이고, 최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은 현재 전북도가 가속입자 치료기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 신축센터와 교육원은 올해 2월 착공식 후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600호의 행복주택은 9월 착공 2019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3대 국책연구소 22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고, 연구 성과물(▲첨단방사선연구소 33개 기업 36건 이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개 기업 21건 이전 ▲안전성평가연구소 12개 기관·기업에 16건 이전)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컨테이너 점박기 국산 상용화 시대'를 연 컨테이너 점박기 생산업체인 ㈜이큐스텍 등 5월 현재 모두 22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분양률 64%)했고, 현재도 5개 기업이 입주상담 중이다.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는 5월 말 기준 9개 업체가 입주분양 계약(4만 824㎡, 28%)했고, 5개 업체가 입주 상담 중이다.

◇4계절 토탈관광 실현의 발판을 다지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86.8% 분양됐다. 특히 대일 내장산골프장은 내년 5월 토목공사를 마치고 6월경부터 시범 라운딩을 거쳐 9월에 개장될 예정이다.

47면 규모의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은 전국 명품 국민 캠핑장으로 자리 잡았다. 벚꽃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 잔여 공사 마무리를 거쳐 2019년 상반기 본격 개관될 예정이다.

옛 내장산관광호텔 자리에 10층 210실 규모로 건립 예정인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구절초 테마공원 명소화사업과 관련, 지난 3월 구절초 테마공원이 산림청 주관 2018년 자생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친환경적인 자생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2015년 준공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KAPC)'는 시간 당 8톤, 1일 최대 48톤, 연간 최대 6000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시기별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37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또 교도소매장터 로컬푸드직매장도 지난 4월 개장, 농산물 판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가기관과의 단단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농업연구와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귀농인의 집 마련과 가족실습 농장 조성, 현장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준공, 축사시설 현대화 등 친환경적인 축산환경도 조성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더 큰 미래를 그리다

김 시장은 이러한 성과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지속적인 첨단과학기술 선도도시 기반 마련사업'과 관련해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클러스터의 견고한 구축, 그리고 전북연구개발특구 4차 산업혁명의 거점화, ㈜다원시스 본격 가동 등을 제시했다.

또 태산선비문화권 등 인문관광프로젝트 추진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 내장산을 축으로 한 휴양과 힐링의 오감만족 토탈관광 실현 등은 '사계절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건설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의 핵심사업으로는 대표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테마형 유망산업 육성을 들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면 시행, 구도심 도시 재생 활력프로젝트와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적극 추진 등 '사람 중심의 든든한 복지 도시' 만들기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해 말 지방채 모두 상환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
첨단과학산단,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동차기업 다원시스 유치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식

다원시스 전동차

첨단산업단지

내장산 브랜드를 알림